『젠더와 문화』 제13권 1호(2020), pp. 45-81

일반논문

이혼여성의 성장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김정아** · 공미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연구자인 '나'의 이혼과정과 적응경험을 성장의 관점에서 다룬 것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자문화기술지를 사용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나'의 경험을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서술하는데 유용한 방식이다. 자료는 이혼 후 적응경험을 시간순서로 정리하고 그 과정을 자전적 글쓰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수집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이혼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생각은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혼 후 적응경험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나를 자각하게 하여 의식의 재구조화를 확립하도록 성장시켰다. 셋째, 이혼 후 적응경험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사회적 자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적응과정을 통해 미래의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가 이혼 후 성공적 적응과정을 위해 투쟁하는 이혼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혼 후 적응, 성장, 의식의 재구조화, 사회적 자아, 자문화기술지

---

* 이 논문은 김정아의 석사학위 연구보고서(2018)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주저자, 부산시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원(jeongah93@hanmail.net)

*** 교신저자, 신라대학교 복지상담학부 교수(kong@silla.ac.kr)

ⓒ 202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DOI: https://doi.org/10.20992/gc.2020.06.13.1.45

1. 문제제기

2000년대 이혼 건수는 1997년 이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는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혼은 10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이혼율(인구1천명당 이혼건수)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4.4건으로 전년과 유사하여 2003년 7.2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혼율은 감소되었지만 평균 이혼연령이 남자 47.6세, 여자 44.4세로 10년 전에 비하여 4.4세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통계청, 2017) 이혼의 원인도 다양해졌다. 그 원인으로는 결혼에 대한 의미변화, 여성의 지위 향상, 경제적 자립,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족의 소득증대 등이 있다(정민자·옥선화·고선주, 2005). 특히, 여성의 경우 과거 가족제도나 가부장적인 제도에 의한 억압과 차별을 거부하고 독립된 자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성과 존엄성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유영주, 2004).

이혼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결혼과정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의 한 방법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극복하지 못한 인생의 실패로 인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문혜선, 2011). 이러한 편견 속에는 경제적 부양자와 가사노동 전담자가 상호의존 하는 핵가족 위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잠재해 있다. 특히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자신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혼과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된다(이여봉, 2008).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혼제도 속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받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이들을 사회구조 외각에 차별과 소외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측면이 있다(김옥경, 2012).

이혼과 관련한 연구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계자료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이후 이루어진 질적 연구들은 이혼의 원인과 극복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많은 양상이다. 이러한 연구들로는 이혼 이후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에머리(Emery, 1999)는 이혼 여성의 경험과 성장, 자녀양육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에서 이혼이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사회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전환과정이라고 지적했다(김옥경, 2012 재인용). 따라서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여기는 불편한 시선들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이해를 넓히려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1999년 9월에 결혼하여 2016년 3월에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처음부터 불행하려고 결혼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꿈에 부풀어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다. 16년의 결혼생활 매일 매일이 모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으며 이혼하기까지의 과정 역시도 삶에 지친 자포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이혼은 나에게 삶의 경험을 수용함으로써 좀 더 성숙한 자아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며, 이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문화기술지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이혼 후 개인적인 성장과정에 대해 밝힘으로써 이혼과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을 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강요받거나,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는 비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고 현재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이 무엇보다 요구되는데 이는 이혼여성의 입장으로 이혼의 경험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기존 남성 중심적 결혼체제에 대한 비판과 이혼여성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이혼과정과 그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맞추어 연구문제는 크게 "이혼 후 성장경험은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2. 이혼여성과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체로 이혼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한 이혼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곽배희, 1994; 김진섭, 1996; 최재석, 1982)와 이혼소송에서의 이혼원인, 재산분할권, 자녀양육권의 문제를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의 자료를 토대로 다룬 연구(변화순, 1996; 표계학, 1995) 등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혼여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갈등의 원인과 이혼 후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우선 갈등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이혼여성의 자립과정에서의 갈등과 대응(손현숙, 2007), 이혼여성의 자존감 회복에 관한 연구(김옥경, 2012), 이혼여성의 애착유형과 이별과정(주국희, 2006) 등이 있다.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이혼경험자의 인지적 유연성과 시간관 및 성장(한정숙, 2014), 모래치료와 다문화 이혼여성의 자기성장 효과(김지애, 2016), 상담프로그램이 저소득 이혼여성에 미친

효과(황춘화, 2015) 등이 있다.

이혼에 대한 관점은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는 병리모델 관점과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규정하는 위기모델 관점으로 나누는데 최근에는 위기모델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이혼을 전후한 과정상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김수정·권신영, 2001). 이렇듯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변화와 과제를 안겨주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삶의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이러한 이혼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와 사회진출 확대로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높아진 반면, 기존의 권력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남성과의 견해 차이가 여성으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진다(문혜선, 2011).

이혼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결혼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오랜 과정을 통해 어렵게 도달하게 되는 경험이다. 다시 말해, 이혼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내포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수정·권신영, 2001). 이혼을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이혼연구를 위해서는 이혼의 성립 자체보다 이혼을 전후한 과정상의 문제와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수정·권신영, 2001). 그로부터 이혼 후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권소영, 2004; 문현숙·김득성, 2000; 박현주, 2005; 손정연, 2006; 손현숙, 2007; 옥선화·성미애, 2004; 이경희, 2006) 이혼과정 중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문현숙·김득성, 2000; 박현주, 2005; 성정현, 1998; 손현숙, 2007; 옥선화·남영주·강은영, 2006; 이순영, 2000; 최정숙, 2004)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개인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사회적

구성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장은 개인화와 사회화 과정이다(전성은, 2017). 칼호운과 테데치(Calhoun and Tedeschi, 1999)는 외상 후 성장이론에서 '외상'을 사건 자체의 객관성보다 그에 대한 개인의 지각, 그로 인한 심리적인 반응 내지는 일련의 경험들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쟁, 테러, 재난과 같은 매우 강력하고 예외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위험으로 지각되어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나 경험은 모두 외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김고은, 2013 재인용). 외상 후 성장이란 위협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말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라 함은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 기능과 적응수준, 혹은 삶에 대한 인식수준을 뛰어넘는 발달을 가정하며(Zoellner and Maercker, 2006), 외상을 통해 상처받기 보다는 이에 저항하는 능력과 적응수준의 질적 변화, 즉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Tedeschi and Calhoun, 2004; 김고은, 2013 재인용).

칼호운과 테데치(2006)는 성장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3가지의 변화를 첫째, 외상으로 인한 자기지각의 변화, 둘째, 대인관계의 변화, 셋째, 인생관 즉, 삶에 대한 영적·철학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자기지각의 변화는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내면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지각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지각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의 외상사건을 개방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오히려 친밀감을 경험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대인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인생관의 변화는 외상경험을 통해 인생목표와 우선순위가 변화할 수 있고 일상에서 오는 사소한 자극들에 감사하며 종교적·영적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을 의미한다(남여명, 2016).

인간이 겪는 크고 작은 생활사건 중 이혼의 경험은 많은 문제와 갈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rice and McKenry, 1988). 이렇듯 이혼은 그것을 경험한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자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오히려 정서적 비약을 통한 내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이혼을 전후한 문제와 적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으며(김수정·권신영, 2001),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옥선화 외(2006)는 사회적 편견이 이혼여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손현숙(2007)은 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이혼 후에도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회복하여 자립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으며, 문현숙과 김득성(2000)은 자녀의 존재가 이혼여성의 삶에 가치와 희망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은화(2009)는 이혼 후 성공적 적응과정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사자인 이혼여성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혼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혼 후 성장과 성공을 경험한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느끼는 상황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혼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드러나게 될 때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혜선(2011)은 이혼과정에 대한 가족생애사적 분석을 통해 가족생애사적 주요사건과 경험이 결혼을 결정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므로 배우자 선택 및 결혼에 대한 올바른 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혼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인식하면 이혼 후 심리적 안정과 자아성취도가 높아지므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는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나 이혼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전제와 같이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이혼은 일탈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더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혼이 개인 여성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혼 전후의 적응은 이혼에 관한 개인적 인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은 반드시 지양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이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인 '나'의 이혼경험을 회상을 통해 기록한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에 토대를 두었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인 '나'의 자전적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기술지적 연구방법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박순용·장희원·조민아, 2010). 방법론적으로 자문화기술지의 중심적인 특성은 자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속한 문화의 인류학적, 사회과학적인 정보를 분석 및 해석하며 그 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이혜민, 2017).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적인 삶을 내러티브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술생애사와 유사성을 보이지만 구술생애사가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경험과 재현에 있어서 서술의 간극을 보이는 반면(이재경·윤택림 외, 2012), 자문화기술지는 자신의 경험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자신이 회상하거나 기록한 자전적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인 경험을 묘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 자문화기술지를 택한 이유가 되었다.

자문화기술지는 다문화와 다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인간이해에 관심을 두는 학문의 실천영역에 유용하고 강력한 연구방법이다(이은경, 2015).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경험, 그 의미, 지식, 저항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자아와 권력,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론화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시 말해, 자문화기술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연구자 자신의 사회문화적 자아가 다른 이들과 미시적 상호작용을 넘어 사회·역사·정치·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거시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김영천·이동성, 2011; 이동성, 2012; 이혜민, 2017). 또한,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해 연구자의 삶에 대한 경험을 내러티브로 작성하여 독자와의 공감과 성찰을 촉진시키고, 자신과 타인, 나아가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박순용 외, 2010; 이혜민, 2017).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문화기술지는 이야기 기술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문화적 분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기억자료에 근거를 두어 자료의 다양성이 미비하고 자칫 잘못하면 타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동성, 2011).

리드-다나헤이(Reed-Danahay, 1997)는 자문화기술지 유형을 소수자 문화기술지, 성찰적 문화기술지, 자(서)전적 문화기술지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이은경, 2015 재인용). 이 연구는 리드-다나헤이(1997)가 분류한 자문화기술지 유형 중 자전적 문화기술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자면 소수자 문화기술지, 성찰적 문화기술지, 자(서)전적 문화기술지 등의 세 가지 분류는 개인을 타인 혹은 대상이 속한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에서 연구자료는 기억자료와 자기성찰자료, SNS문자, SNS스토리, 다양한 현장에서의 내담자경험, 집단상담경험, 문헌자료 등에서 수집된다(이동성, 2012).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억자료, 자기분석, 자기성찰에 따른 자료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문분야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에 기초한 자기회상이나 기억자료를 객관성을 상실한 자료로 간주하여 배제했지만 자문화기술지는 오히려 이러한 자료를 중심자료로 간주한다(이동성, 2012).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의 기억과 그에 따른 자기성찰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경험, 이혼 후 나와 아들의 적응과 성장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부부갈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는데 이는 부부갈등보다 이혼경험을 통한 성장의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사건에 대한 회상이 오직 내 관점에 의한 것으로 전 남편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칼호운과 테데치(2006)는 외상 후 자기인식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등을 성장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남여명, 2016 재인용). 이에 따라 결과분석도 글쓰기 형식으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위의 세 가지 변화에 중점을 두고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2) 연구타당도

이 연구의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성(2011)이 제시한 평가준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연구범위를 최대한 제한했으며 기억자료, 메모, 인터뷰 자료 등 다양한 매체로부터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의 초고는 질적 연구방법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재구성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함께 겪은 가족으로부터 이 글을 검토하게 하여 과거회상이 왜곡되지 않게 보완하였으며 연구주제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변동료 세 명과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동료 두 명과 읽으면서 내용과 구성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

지막으로 타인의 사적 정보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 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했다.

4. 연구결과

1) 성장과 이혼과정

(1)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과거를 회상하는 일은 그다지 즐겁지 않다. 과거 폭력적인 아버지, 부모님의 이혼 등 가족갈등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규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 싫었고 이혼에 대해 강하게 만류하는 주위사람들의 태도에 더욱 그런 기분이 들어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상처의 극복은 그 상처를 완벽하게 잊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아픈 경험을 견디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된 과거의 성장배경을 간략히 기술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음에도 외항선을 타고 나가시면 집에 안 계신 1년 동안은 집안이 평온했으므로 우리 부모님 관계가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날도 엄마와 아버지는 밤새 다투셨다. 주로 엄마를 향한 아버지의 반복된 잔소리였고 끝내 아버지는 또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다음날 병원에 가셨던 엄마는 뇌진탕 진단을 받으셨다. 엄마의 사촌동생은 상습적으로 구타당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많이 놀라셨고 엄마는 그 분 덕분에 첫 번째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고 사촌이모네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다. 그리고 진단서를 끊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재판을 진행하셨다.

1986년, 눈이 내리는 12월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가 오빠와 나, 동생을 안방으로 부르셨다. 우리 셋은 안방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는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물으셨다. 사실은 물어볼 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엄마하고 살고 싶었다. 그때 오빠는 고등학교 1학년,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고 무서운 아버지와 살기 싫은 것은 당연했다. 오빠와 나는 그날 엄마에게 가라고 집에서 쫓겨났다가 엄마가 오빠와 나를 키울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엄마는 아버지와 첫 번째 이혼을 하셨고 나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다. 그 동안 아버지는 엄마를 못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볼 수 없었고 엄마는 항상 그리운 존재였다.

1990년 5월 8일, 고등학교 1학년 점심시간에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학교로 찾아오셨다. 두 분이 다시 합치기로 하셨고 우리 가족이 모두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전하셨다. 당시 성당을 열심히 다녔던 나는 매일매일 학교가 끝나면 성당에 쫓아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두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나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다.

1994년 10월 어느 날, 얼마 전부터 군대를 제대한 오빠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엄마는 가게 일을 끝내놓고 12시가 가까이 되어서야 들어오셨는데 의지가 되는 아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빠의 술주정에 더는 못 참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이 시작되어 부엌의 살림살이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다. 아무튼 기억나는 그날의 느낌은 이대로 있다가는 오늘밤 엄마가 죽을 것 만 같았다. 기억이 토막토막 끊겨있다. 오빠는 엄마를 들쳐 업었고 동생과 나는 손을 잡고 골목을 마구 달려 근처에 살고 계시는 큰 이모네로 몸을 피했다. 그렇게 집을 나와 엄마는 아버지와 두 번째 이혼을 하셨다.

어릴 적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영화배우처럼 참 예뻤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학창시절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던 엄마는 여자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는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엄마는 결혼을 결심했고 불행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으며 죽을 만큼 폭력에 시달리고 나서야 자식들의 설득에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했다.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엄마는 슬프고 힘들어보였다. 참고 사는 엄마를 보는 나도 슬프고 힘들었다. 엄마가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2)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뭐? 이혼? 이혼이 무슨 옆집 개 이름인줄 아나? 성실하고, 착하고, ○서방 정도면 됐지 뭐가 문젠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세상사는 게 뭐, 쉬운 줄 아나?"
"니네 부부가 이혼하면 세상부부들 다 이혼해야겠네."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애들 땜에 다들 사는 거지."
(2014년 나의 이혼결심에 주변사람들의 반응 회상자료)

1999년 9월 19일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노동조합 활동가로, 나는 학생운동을 거쳐 진보정당 활동가로 만난 지 9개월 만이었다. 나는 26살, 남편은 35살이었다. 엄마는 나이차이도 너무 많고 남편이 모아 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고 걱정이셨지만 결혼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같고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엄마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부수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여겼다.

2013년 2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부채를 상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모르고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지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나에게 남편

은 아무런 설명 없이 입을 닫았다. 해줄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점점 필요한 말 이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남편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대화를 시도하고 화도 내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2014년, 40세가 되는 그 때,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나는 지금까지의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우울했다. 누구보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는 나와 어떤 정서적 감정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나 역시 우리의 문제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더 이상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입을 닫았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남편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으며 생활패턴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턴가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우울해졌다. 깊이 잠들지 못했고 행복하지 않았다.

2014년 가을이었다. 한 동안 가만히 누워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의 정서적인 단절에 대한 슬픔으로 잠 못 이루는 나, 가족을 정서적인 결속이 아닌 생활하는데 필요한 형식적인 테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남편, 그 사이에서 이쪽저쪽 눈치 보며 불안해하는 아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누구도 행복하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나에게 행복은 많은 돈도, 높은 지위도, 넓은 집도, 좋은 차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이 쌓여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익숙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매일을 반복하다가 늙고 싶지는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 앞에 섰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지금 이대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 주변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주던 대학선배가 나에게 했던 말이 용기와 힘이 되었다.

나: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똑같아 지는 거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냐고 다들 그래. 책임감 때문에, 애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 내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걸까?

선배: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한 사람하고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신뢰가 깨졌으면 아무것도 안 남은 것 아니가? 다들 그렇게 산다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니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답이다. (2014년 10월 대학선배와 대화 회상자료)

2014년 5월, 나는 별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3월,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결혼한 지 15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아들과 둘이 살았고 지금까지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 이혼을 실행해 옮기기까지 한 명의 선배 외에는 아무도 내 이혼을 지지하지 않았다. 내 이혼결심에 대해 친구와 가족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여자 혼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아이양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한 여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등에 대한 걱정이었다.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으며 결혼하고 십년을 훌쩍 넘은 시점에서 사랑타령이라니 나 스스로도 내가 우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한 나는 엄마가 불행하면 아이들에게 결코 행복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행복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고통 받는 어머니 불행을 보고 자란 영향이 가장 컸다. 이혼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아

들을 보면서 이혼을 선택한 것 자체가 '나만 행복하고 편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아들에게 상처를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많은 일들을 겪고 함께 갈등하고 울고 웃으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행복이 삶의 과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은 물론 아들에게 엄청난 상처이지만 이것이 부모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아들이 자라면서 겪는 수많은 상처와 갈등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이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무런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2014년 이혼을 결심했을 때 메모 회상자료)

2) 이혼 후 성장경험

(1)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의식 재구조화

① 생존을 위한 경제적 자립

결혼하고 4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한 엄마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보고 자란 나는 행복한 결혼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결혼 이후 또 다른 고민은 '아이를 낳고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1999년 무렵, 학생운동 이후 진보정당운동을 하고 있었던 나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라는 조건이 조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한 이유로 행사를 치르듯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막상 아들을 낳고 키우는데 도움을 요청할 만한 가족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다. 남편과 갈등이 시작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내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고

이러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일을 하고 싶었다.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현실은 내 맘 같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결혼생활 동안 가족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고민 해 본 적이 없었다. 아들이 생기면서 양육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키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다는 생존에 대한 고민은 내 몫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 같다.

남편과 따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자아성취나 자기개발 이전에 나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성악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부전공한 나는 결혼 전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을 했었다. 피아노학원 강사를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40세가 다 된 아줌마를 피아노 강사로 쓰려는 학원은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전화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갔지만 나이 때문에 몇 번의 거절을 겪고는 더욱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두려웠다. 그러다 화장품회사 대리점을 막 시작한 친정엄마의 친구로부터 제품교육 강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고민의 여지없이 곧바로 출근을 시작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이었지만 화장품 대리점 강사는 나의 생존을 위한 일로서는 월급이 너무 적었다. 그래서 옮긴 직장이 동생의 소개로 일하게 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었다.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같은 주거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는 곳이었다. 내 역할은 경리사무원이었는데 재건축 현장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면서 업무량도 늘게 되었다. 이후 회계업무를 분리하여 경리사무원을 따로 뽑았고 내 직책은 과장이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

'며느리 사표'의 저자 영주(2018)는 며느리 사표를 던지고 나니 집안에서는 언제나 손님이었던 남편이 비로소 주인이 되었다고 했다. 남편은 집

안에서는 언제나 대접받는 손님이 되어 세탁도, 요리도, 청소도 모두 당연히 부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나 저자 자신이 변하고 나니 남편도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다른 각도에서 나 자신이 떠올랐다.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을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경험은 나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했으며 내 삶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② 완벽한 부모는 없음을 인정하기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고인 물처럼 썩어갈 것 같아 두려워 이혼을 결심했다. 어린 시절 엄마의 불행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고통과 상처가 되었던 경험을 통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이러한 선택이 아들과 나에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되었다. 내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정서적 불안을 아들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채기 위해 노력했고 책도 찾아 읽었다. 그리고 아이의 감정표현에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아빠와 헤어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동안 많은 대화를 통해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보였지만 엄마와 아빠 중 누군가와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아들: 그냥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좀 불편해도 참

을 수 있어. 나는 엄마도 아빠도 좋아.

나: 엄마, 아빠 중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근데, 서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빠, 엄마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아들: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산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 창피해.

나: 아들,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가 함께 살지 않기로 했지만 알다시피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를 낳았지만,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따로 사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엄마, 아빠가 따로 살기로 한 선택과 상관없이 아들은 여전히 엄마, 아빠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아들: … (2014년 전 남편과 따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아들과 나눈 대화 회상자료)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실타래처럼 엉켜 복잡했지만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이혼숙려기간에 이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여자는 일곱 커플 정도 되었는데 남녀로 나누어 따로 진행되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참여자 모두가 서로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프로그램 중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내 미래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다. 다만 아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다.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막상 절차가 진행되니 '내가 행복해야 아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합리화가 아닐까', '나의 행복을 위해 아들에게 상처만 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적은 고민을 본 프로그

램 진행자는 부모님의 이혼은 당연히 아들에게 상처가 되겠지만 사랑과 신뢰로 부모의 자리를 잘 지키면 아이는 빨리 제자리로 돌아 올 것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올라왔고 나 자신에게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이를 낳고 친정 엄마의 권유로 나가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

> 최고의 부모가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자녀가 속 썩인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까지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나에게 보내준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2014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회상 자료)

(2) 사회적 자아로 확장하기

①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가기

어이없게도 남편도 나도 돈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 소위 운동권 안에서도 우리는 참 지지리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으므로 결혼생활 내내 불행하지는 않았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회사 근처에 집을 구입해서 나가고 나는 아들과 함께 26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지금 사는 곳은 이혼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이다.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달에 150만원씩 받는데 자동이체 되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통장에 들어온다. 최근 나의 소득은 연봉 3500만 원 정도로 사실 이혼 전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것 같다. 정서적인 여유로움

이 더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이혼 전에는 남편과 아들, 우리 집을 위한 지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온전히 내 삶을 위한 지출과 저축에 집중되어 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다. 내 생활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침이면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 와서는 아들과 저녁을 먹고 저녁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다. 나는 2014년 00대학 상담심리학과 3학년에 편입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늦게 다시 시작한 공부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아들도 잘 적응하는 것 같았다. 학급에서는 부반장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전 남편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들에게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다른 환경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전형적인 젠더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면서 성장한 나는 한부모로서 한계도 느껴졌고 아들도 엄마와 둘만 사는 우리 집의 가족형태는 비정상이라고 인식했다. 아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자신이 지켜줘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한없이 자신을 받아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혼자 사춘기를 겪는 아들을 키우는 나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기분을 느꼈다. 아들을 키우면서 나의 최선은 현재 나의 상황을 투명하게 아들에게 오픈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었다. 세미나가 있으면 함께 가고 1박2일 연수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면서 가능한 곳이면 데리고 다녔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애교 많고 수다스러웠던 아들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서 말수가 많이 줄어들고 학교에서는 종종 사고를 쳤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았는데 주로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

고 떠든다거나 자기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 수업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 혼자 키우는 아들이라 그렇다는 말을 들을까봐 지레 걱정이 되었다. 그때마다 아들은 "엄마는 그냥 내 편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사실 마음은 아들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는 엄마이고 싶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 역시 매순간이 혼란스러웠다.

하루는 학생주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아들이 점심시간에 친구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계단에서 친구를 밀어서 친구가 계단 아래로 넘어졌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왜 자꾸 엄마를 속상하게 하느냐"고 심하게 다그치고 몰아세웠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학생주임 선생님께서 아들과의 면담 후 다시 전화를 하셨다. 친구를 때렸던 이유는 엄마를 욕했기 때문이라는 것, 참으려고 했으나 엄마를 욕하는데 순간 참기가 힘들었다는 것, 앞으로도 엄마를 욕하면 참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들에게 "엄마를 욕하면 선생님이라도 안 참았을 거야. 엄마는 좋으시겠다. 엄마를 이렇게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런 용기도 있어야죠." 하시며 "실수하고 선생님께 야단도 맞으면서 더 단단한 아이로 자라겠죠."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과 통화를 끊고 한참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미숙한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고 싶었다. 그리고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아들은 지속적으로 소소한 사고를 쳐서 엄마와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게 아들과 나는 또 한 고비를 넘었다. 앞으로도 현실은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동화처럼 "그 후,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함께 고비를 잘 넘겼고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잘 적응해 나갈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자료: 2016년 7월 21일 sns작성글

남편은 아들을 무척 사랑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장하면서 좋은 아빠의 역할을 배우지는 못한 것 같다. 아들은 성장하면서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항상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단다. 하지만 아들은 아빠를 항상 걱정한다. 술은 많이 마시는지 담배는 끊었는지 자꾸 체크한다. 혼자 사는 아빠가 걱정이란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항상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아들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고민하기도 한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들은 '한국 근현대 노동운동의 역사' 란 주제로 고등학교 졸업논문을 써보고 싶다고 한다. "아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고..."라고 말하면서.

이혼은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만 아들에게는 부모 모두가 가족이고 가족은 상처와 기쁨도 함께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② 더 나은 삶을 위해 준비하기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재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재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고 싶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눈에 들어 온 것은 00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음악 심리지도사 과정이었다. 조건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3급 과정에 등록을 했다. SCT 검사지를 활용하는 법을 익히면서 직접 검사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그때 처음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내 태도는 모두 부정적이었다. 권위자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내 마음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마음을 담는 컵 속에서 상처가 뿌옇게 흙탕물처럼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맑은 물이 담겨있는 줄 알았는데 젓가락으로 한번 휙 저었더니 가라앉아 있던 상처의 흙들이 물속에서 확 일어났다.

음악 심리지도사 3급 과정이 끝나고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 음악 심리지도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좀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도 점점 바쁘게 돌아갔다. 저녁에 듣는 인터넷 강의를 자칫 미루면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애를 썼다. 출퇴근시간에 핸드폰으로 강의를 듣기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출근을 했다. 운전해서 출근을 하면 30분이 걸리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면 1시간 30분이 걸렸다. 3배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침에 좀 일찍 나오면 1시간 30분 동안은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새롭게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다.

직장을 병행하며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고, 과목 별로 리포트를 제출했다. 주변에서는 "뭐 하려고 굳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며 제때 졸업하기 힘들 거라 했다. 더 나은 내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다.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대학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되겠냐. 대학원까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했고 나도 문득 마음에 갈등이 일었다. 대학 동아리를 함께했던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대학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했던 동기 언니는 마음이 들떠있었다. 나에게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보냈다. 언니는 그때 52살이었다.

새로운 직장을 가지고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하기에 나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망설이게 되는 나를 발견했다. 걱정하는 나에게 언니는 "무슨 소리 하노?" 라고 말하며 크게 깔깔거리고 웃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나도 따라 웃었다.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 나는 일하고 공부하면서 만난 인간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기도 한다.

> 나는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젊다. 그것은 실제 내 나이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1월 대학원 합격이후 회상자료)

공부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내 마음에 담긴 흙탕물을 조금씩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살면서 어린 시절 상처받았던 내면을 직면하기보다는 두꺼운 껍질 속에 가두어 놓고 회피하고 있었다. 이혼을 결심하고 적극적인 적응과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나를 알게 되었다. 어디에도

안전하게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나는 마음을 감추고 덮으며 괜찮은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 안전지대가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내 열망을 직면함으로써 나는 그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

(3)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

대학원 석사학위청구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을 때쯤 어느 날이다. 아들과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잠깐 산책을 나갔다. 봄이 짧아져 여름이 벌써 왔다고 하지만 아직 저녁 바람은 선선했다. 그날따라 더욱 그랬다. 우리는 집 앞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사이좋게 한 개씩 입에 물고 걸었다. 아들은 엄마가 쓰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읽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다 쓰고 나면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 다른 건 괜찮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불편해. 친한 친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놀릴까봐 무섭기도 하고...불쌍한 눈으로 볼까봐. 그런 것도 싫거든…

나: 나의 사생활을 모두하고 공유할 필요는 없어.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한테도 말 못했어?

아들: 어. 그 친구도 짐작으로 이제 아는 거 같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 가정시간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족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조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나랑 같은 조 애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뭐 했다고 … 근데 나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무섭더라고. 아이들이 나한테 물어볼까봐. 물어보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 (그리고 아들은 목이 메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나: 아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아들에게 그런 슬픔을 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 엄마는 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지만 엄마는 아들에게 최고의 엄마일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줘. 앞으로도 아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될게.

아들: 알아. 엄마가 잘못했다거나 엄마가 미운 건 아닌데…

나: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은 ○○이의 잘못이 아니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은 ○○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엄마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아들이 담대하고 배려심 깊은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아들, 미안하고, 사랑하고 사랑해.

아들: 응. 나도 엄마 사랑해.(2018년 6월 1일 아들과의 대화 기록)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았던 나는 아들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의 고민과 갈등이 내 선택으로 비롯된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아들도 아픔과 갈등을 스스로 다스리기도 하고 엄마와 혹은 친구와 소통하기도 하면서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었다. 자신의 아픔을 엄마에게 드러내고 아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감사하기도 했다. 어쩌면 엄마가 연구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보며 아들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파하고 갈등하며 성장한다. 아들이 갈등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두려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아들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많은 갈등상황과 선택의 순간들이 올 것이다. 나와 아들은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몇 번의 반복을 통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② 온전히 혼자, 그리고 함께

나는 대학 때도 그랬고 졸업 후 사회단체에서 나름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였고 대중집회에서 전투력 등의 실력도 인정받고 있었다. 결혼 4년차에 활동하던 사회단체 내부에 복잡한 노선의 문제가 생겨 어수선하고 몸과 마음도 지쳐있었을 때 나는 불쑥 아이를 낳고 싶었다.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이전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다. 남편과 아들이 내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혼의 과정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이었다. 내 이혼을 불편해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이혼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자아로서 온전히 혼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 학교, 가정에서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방법을 익혀나가고 있다. 이혼의 경험은 나에게 큰 시련을 맛보게 했지만 또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발견을 통해 나를 성장시켰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당 활동가로 일하면서 26세에 결혼해 16년을 살다 이혼한 40대의 나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작했던 상담공부를 통하여 과거의 나를 만나게 되었다. 상담공부를 시작하면서 외면하려고 했던 내 과거 상처들이 사실은 현재의 나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며 나를 상처내거나 더욱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상처 난 마음은 깨진 유리조각 같아서 위로하는 주변사람들의 손길에도 상처를 낸다. 이를 극복하려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누리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감사와 행복을 나누며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기를

꿈꾼다. 결혼해체와 이혼을 경험했지만 이는 내 인생에서 또 다른 선택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아름답게 늙어감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어제 상담윤리 시험을 끝으로 4학기가 끝이 났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나에게 오늘은 토닥토닥. 아직도 가끔 2016년인지 2017년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곧 2018년이다. 아들이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행복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다. 시간 사이사이 숨어있는 행복을 00이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일은 감기안녕~ (2017년 12월 21일 목 일기)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이혼여성의 적응을 성장의 관점에서 자전적 글쓰기의 유형으로 기술한 자문화기술지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중심 사회구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혼 여성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치관도 다양해지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혼에 관한 연구도 이를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으며 적응과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결혼생활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을 거듭하며 이혼을 선택하고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은 나에게 무척이나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한 경험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자문화기술지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생각되었다.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이혼 후

적응과정을 다룸으로써 내가 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혼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생각은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고는 어릴 때 부모님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불행해 보이는 엄마를 통해서였다. 불행한 엄마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식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혜련(1995)은 가부장적 결혼 속의 모성이 자식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분열을 경험하게 한다고 한다. '나 혼자만 참으면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엄마의 인내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고통과 불안 속에 살게 했다는 과거에 대한 인식이 이혼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여성의 생애주요사건과 가족생애사적 경험이 결혼을 결정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한 문혜선(2011)의 연구결과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혼 후 적응경험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나를 자각하게 하여 의식의 재구조화를 확립하도록 성장시켰다.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은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인 독립을 하겠다는 결심과 같은 말이다. 결혼 후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나는 진지하게 경제적인 독립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는 여성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불평등한 구조 속에 안주하도록 한다. 나는 이혼을 고민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스스로 살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다. 이혼 후 적응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살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버는 일은 나에게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었고 내 삶을 온전한 내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내 삶을 적극적이고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최은화(2009)는 이혼여성의 성공적 적응과정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삶에의 도전'과 '자립적인 삶의 추구'는 이혼여성이 경험하는 적응과정의 중심현상으로 긍정적인 자기강화와 변화에 대한 의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내 이혼경험도 바로 이러한 의지에 의해 사회관계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김혜련(1995)도 이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과정은 돈벌이 이상의 자원, 즉, '세상사는 이치'를 아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혼 후 새로운 환경에서 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고민과 갈등은 나와 아들을 함께 성장하게 했으며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아들과 엄마의 관계에서도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이기적인 것 일지도 모른다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고 아이를 잘 키워야한다는 책임감에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아들과 나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혼여성들에게 가족과 의미 있는 타자와 같은 대인관계 자원에 따라 이혼의 적응이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문현숙·김득성, 2000; 최은화, 2009) 아들은 내 이혼적응과정에 중요한 긍정적인 대인관계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이혼 후 적응과정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사회적 자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들과 함께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일과 공부를 통해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밖의 일'을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여성의 행복에 기본이라는 태도에서 이제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회적 존재로 거듭 난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적응과정을 통해 내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고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혼 후 온전하게 독립적인 삶은 '새로운 삶'으로 다가왔

으며 40대에 맞이하는 삶은 좀 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믿는다.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늙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 학생운동의 경험을 통해 '여성주의'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을 머리로만 인식하였다면, 나는 이혼의 경험을 통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여성주의를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자문화기술지 형식으로 연구한 '나'의 이혼경험은 성숙한 자아정체성 획득과정이며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 있는 중년여성의 성장에 관한 것이다. 이는 김수정과 권신영(2001)이 제시한 이혼에 대한 관점, 즉, 이혼을 사회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성장과정에서 나는 모든 관계는 평등하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으며 스스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지 못했다. 결혼생활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보편적인 방식을 지키는 것이 나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 굳게 믿었다.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깨뜨리고 변화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혼경험을 자전적인 글쓰기의 방식으로 기술하면서 나는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양한 선택을 경험한다. 다양한 선택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성장을 이룰 것이냐는 각자의 몫인 것이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 던진 나는 이혼여성의 사회적 낙인에 저항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자아성장을 위해 학습하고 노력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으며 더욱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나는 이혼을 통해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성장해가리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내 연구는 이혼과 이혼여성에 대한 기존 관념을 깨는 여성학적 연구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이 연구를 계기로 이혼을 전후한 과정과 적응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져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연구는 주로 내 기억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참고문헌

곽배희(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권소영(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이혼 후 생활변화, 개인적 자원,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고은(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삶의 의미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수정·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한국가족복지학』, 제1권 8호, 41-74쪽.

김영천·이동성(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제19권 4호, 1-27쪽.

김옥경(2012), "이혼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자존감 회복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

김지애(2016), "모래놀이치료가 다문화 이혼여성의 자기성장과정에 미치는 효과",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특수심리치료전공 석사학위 논문.

김진섭(1996), "사회변동과 이혼율 추이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혜련(1995),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서울: 또 하나의 문화.

남여명(2016), “외상 경험자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효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문현숙·김득성(2000),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3호, 99-120쪽.

문혜선(2011), “이혼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가족생애사적 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 석사학위 논문.

박순용·장희원·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제13권 2호, 55-79쪽.

박현주(2005), “이혼한 성인자녀가 받는 부모의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 논문.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성정현(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손정연(2006), “결혼의 질, 이혼 장애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학위 논문.

손현숙(2007), “이혼여성의 자립과정에서의 갈등과 대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영주(2018), 『며느리사표』, 서울: 사이행성.

옥선화·남영주·강은영(2006). “이혼자들의 이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223-235쪽.

옥선화·성미애(2004), “20-30대 이혼남녀의 이혼과 이혼 후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16호, 141-160쪽.

유영주(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하우.

이경희(2006), “이혼 후 한부모의 적응관련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동성(2011), “한 교사 연구자의 변환적인 역할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제14권 2호, 61-90쪽.

_____(2012),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이순영(2000), “30대 이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여봉(2008),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 파주: 양서원.

이은경(2015),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를 경험한 위기부부의 치유과정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이재경·윤택림 외(2012), 『여성주의 역사쓰기』, 홍천: 아르케.

이혜민(2017), “음악치료사의 훈련과정에서 경험한 열등감 인식과 통찰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석사학위 논문.

전성은(2017), “다차원적 경험회피, 자아탄력성과 이별 후 성장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논문.

정민자·옥선화·고선주(2005),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주국희(2006), “이혼여성의 애착유형과 이별과정”, 신라대학교 대학원 가족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은화(2009), “이혼여성이 경험하는 성공적 적응과정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최정숙(2004), “이혼여성의 이혼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표계학(1995),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와 자의 부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한정숙(2014), “이혼경험자의 인지적 유연성과 시간관이 역경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황춘화(2015), “자기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예술매체 상담프로그램이 저소득

이혼 한부모여성의 자기성장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Calhoun, L. G. and R. G. Tedeschi(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_____(2006),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Emery, R. E.(1999),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Price S. J. and P. C. McKenry(1988), *Divorce Family Studies Text Series 9*,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Inc.

Reed-Danahay, D. E.(ed.)(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Oxford: Berg Publishers.

Tedeschi, R. G. and L. G. Calhoun(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pp. 1-18.

Zoellner T. and A. Maercker(2006),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pp. 626-653.

〈인터넷 자료〉

통계청(2017),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4&themaId=A#SelectStatsBoxDiv(검색일: 2017.11.20).

(논문 투고일: 2019.11.14, 심사 확정일: 2020.06.01, 게재 확정일: 2020.06.10)

〈Abstract〉

Autoethnography on the Growth of a Divorced Woman

Kim, Jeong-Ah* · Kong, Mee-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a divorced woman, the researcher 'I', using autoethnography. Autoethnography is a research method emphasizing 'my own experiences' as a main resource to describe the individual's experience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data for the study compiled my adaptation experiences in chronological order after divorce and recorded the process in the form of autobiographical wri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st influential idea in the divorce process was that only when 'I' was happy could my son grow up to be happy. Second, the divorce experience made 'I' aware of myself as an individual able to enjoy my own life without being subordinate to anyone, and helped to establish a restructuring of my consciousness. Third, the post-divorce adaptation process presented the challenge of a new environment and expanded the social self. Finally, 'I' dreamed that I wanted to be happy and to grow old beautifully, believing that I would continue to develop through the process of solving challenges I fac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empathy and consolation for divorced women struggling to attain successful adaptation to their new situations, and thus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ocial understanding of divorce.

Key words: adaptation after divorce, growth, restructuring of consciousness, social self, autoethnography

---

* Lead author, Counsellor, Korea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Geumjeong-gu, Busa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iv.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ling, Silla University